

취재보도론

1. 다음 중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서술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서론, 본론, 결론 형식의 기사작성 방식이다.
- ② 뉴스를 시간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의 중요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.
- ③ 스트레이트 기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.
- ④ 보통 리드(lead)문→중요 보충사실→추가 정보→세부사실의 순으로 작성한다.
- 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불완전하고 값비싼 전신에 의존하면서 생겨난 방식이다.

2. 다음 중 방송보도에서 숫자 읽기가 옳은 것은?

- ① 남자 58살 → “남자 오십팔살”
- ② 여의도동 188번지 → “여의도동 일팔팔 번지”
- ③ 에어버스 A380 여객기 → “에어버스 에이 삼백팔십 여객기”
- ④ 수돗물 300M³ → “수돗물 삼백 입방 미터”
- ⑤ 육상 100미터 경주 → “육상 일백 미터 경주”

3. 다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특정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다.
- ②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,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.
- ③ 학교장의 동의 아래 학교 행사에 참여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을 촬영 보도했을 경우 언론은 법적 책임이 없다.
- ④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촬영할 때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.
- ⑤ 일단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.

4. 취재 도중 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석에서 공인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보도에 사용했다라도 그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취재 차 방문한 기관이나 회사의 담당자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기자가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.
- ③ 미술품 전시 소식을 스케치 형태로 다루면서 전시된 그림 몇 점을 뉴스로 내보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·예술·체육 행사 등에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5만 원이 넘는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김영란법)위반에 해당한다.
- ⑤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재(위장취재)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, 방법의 상당성, 사안의 긴급성, 법익의 형평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.

5. 기자가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사가치 혹은 뉴스밸류라 한다.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사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시의성
- ② 저명성
- ③ 흥미성
- ④ 근접성
- ⑤ 공정성

6. 다음은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 중 ‘엠바고(embargo)’에 대한 설명이다. 바르게 설명된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— <보 기> —

- ㄱ. 엠바고란 보도를 일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‘시한부 보도유예’를 의미한다.
- ㄴ. 기자단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 혹은 출입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.
- ㄷ. 엠바고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,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.
- ㄹ. 보도가 피해자 도주, 증거인멸 등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.
- ㅁ.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기자는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ㄴ, ㄷ
- ③ ㄴ, ㄷ, ㅁ
- ④ ㄱ,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, ㅁ

7. 다음 사례 중 객관성 원칙에서 벗어난 기사 문장은?

- 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김모씨는 “탄핵은 무효다”라고 말했다.
- ② 애국보수단체 소속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 40여 명이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.
- ③ 김아무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“뭐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”라고 대답했다.
- ④ 청문회에 출석한 김 장관에 대해 박 의원은 “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?”라고 했다.
- ⑤ ‘구국결사대’를 자처한 청년들이 시청청사를 점거했다.

8.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은?

- ① 「저작권법」
- ② 「개인정보보호법」
- ③ 퍼블리시티권
- ④ 「청탁금지법」
- ⑤ 「정보공개법」

9. 언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닌 것은?

- ① 개인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침입하거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
- ②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의료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
- ③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
- ④ 사인에 관해 일반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
- ⑤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

10. 보도자료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되도록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.
- ② 보도자료를 기초로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나 반응 등과 같은 추가적인 뉴스거리를 취재한다.
- ③ 선전적인 인용이나 정보에 주의한다.
- ④ 부족한 정보에 의문을 가지고 의심이 가는 정보와 절차 등을 확인한다.
- ⑤ 뉴스가치가 높은 사안들을 가려내 보도하여야 한다.

11. 다음 중 사건·사고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피의자의 주장도 반론권을 인정해 양측의 주장을 기사 속에 균형 있게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.
- ② 수사당국의 공식 기록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폐나 왜곡 등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.
- ③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의자, 범인의 가족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④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와 논평은 삼간다.
- ⑤ 범죄 수법 등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을 삼간다.

12. 뉴스기사는 기자, 에디터, 편집자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다. 저널리즘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칭하는 말은?

- ① 데스크
- ② 게이트키퍼
- ③ 레이아웃
- ④ 뉴스밸류
- ⑤ 삼각확인

13. 다음 중 의미 전달에 혼선과 잘못이 없는 문장은?

- ①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.
- ② 이 분이 김두환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.
- ③ 영식은 나처럼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.
- ④ 끈질긴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.
- ⑤ 영환 군은 빵과 술을 마셨다.

14. 다음 중 인터넷 뉴스기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?

- ① 기사 작성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이 특징이다.
- ② 인터넷 기사는 심층성을 특징으로 한다.
- ③ 인터넷 기사는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.
- ④ 인터넷 기사 작성과 편집은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.
- ⑤ 텍스트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표현에 활용할 수 있다.

15. 다음 중 기자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를 했는데, 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사에서 밝혔다.
- ② 경제부 기자가 취재 중 얻은 기업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.
- ③ 사인(私人)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는데, 기사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은 없었다.
- ④ 해외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기업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았다.
- ⑤ 어떤 유명인에 관한 비리를 보도했다. 시급하게 사안을 취재하면서 기사에 포함한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었지만,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.

16. 다음 보도 문장 중 교열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한다.
- ② 겉보기에 인상이 좋다.
- ③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기록했다.
- ④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.
- ⑤ 학생들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.

17. 다음 중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?

- ①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,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.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된다.
- ②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.
- ③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부족하지만,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면책된다.
- ④ 명예훼손죄에서 훼손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.
- 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달라진다.

18. 다음의 취재 준칙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난 등의 취재 시,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,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,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.
- ② 병원 등의 취재 시, 기자의 신분을 밝힌다면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다.
- ③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.
- ④ 전자정보나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.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.
- ⑤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,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, 취재수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.

19. 다음 중 주요 통신사와 소속 국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AP - 미국
- ② 로이터 - 영국
- ③ AFP - 프랑스
- ④ UPI - 독일
- ⑤ 이타르타스 - 러시아

20. 보도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피처사진은 뉴스의 중요성은 크지 않지만 인간적 흥미를 자아내는 사진을 말한다.
- ② 일러스트레이션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것도 포함한다.
- ③ 크라핑(Cropping)은 사진의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를 잘라낸 것을 말한다.
- ④ 구도는 사진의 프레임 속에 어떠한 요소를 포함할 것이며 이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하여 사진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이다.
- ⑤ 캡션은 보도사진에 대한 설명으로, 방법에는 비례법, 선투시도법 등이 있다.